

# 좋은사람좋은세상

해양강국을 꿈꾸며, 역사에 남을 박람회 준비에 최선 다할 것



머릿글 뉴패러다임교육원 원장 강용일  
5·6월프로그램

Issue&Seminar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박범신

CoverStory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장승우

리더십이야기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양병무

머니에세이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우승택

지자체포커스 전남 장성군 군수 이청

발행인편지

명사초청특강 농협대학 경영고문 이상영

회원&연구원소식

리더십파트너 LMI

창조경영시찰-일본

제26회 제주섬머포럼

기자의 눈 여의도통신 대표기자 정지환

문용린칼럼

표지인물 장승우 위원장 | 사진 오경근 원장 | 표지디자인 이재경 팀장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통권 제87호 [비매물] 등록번호 : 서울 마 03200 발행일 : 2008년 5월 1일 발행인 : 장만기  
편집 : 정용달 디자인 : 이재경 pas@khdi.or.kr T.2203-3500(대) F.2203-1974 (주)동명인쇄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www.khdi.or.kr

# 창의적인 인재개발의 장 동원리더스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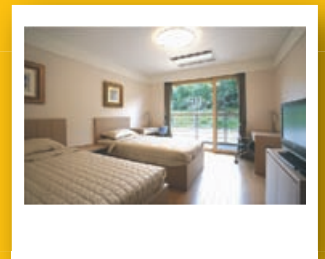
## *The Latest Lecture Room*

"교육성과를 배가시키는  
최첨단 교육시설"



## *Deluxe Accommodation*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고급형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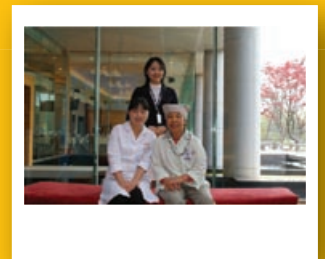
## *Sports & Activities*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육시설"



## *Greeting People*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  
따뜻한 사람들"



**Dongwon Leaders Academy**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19-20

이용문의 : TEL. 031 - 643 - 3600

# 강렬한 꿈을 꾸어라 그것이 해법이다

강용일 뉴패러다임교육원 원장



일러스트 · 이재경

그 려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 내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떤 어려움도 극복 해낸다. 그들은 온갖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현실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주변의 노숙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집이 없다는 것인가. 가정이 없다는 것인가. 물론 그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가슴에 꿈이 없다는 데 있다. 꿈을 심어줘야 한다.

꿈을 가지면 노숙을 하면서도 생활이 달라진다. 꿈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부진으로 신용불량자와 노숙자와 같은 막막한 처지에 있다가도 재기에 성공한 이들이 나오는 것이다.

필자의 옛 직장 동료로 오랜만에 만났다. 그것도 우연히 지하철 안에서... 많이 변해 있었다. 생각해보면 꽤 많은 세월이 흘러 변할 때도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변해 있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일류대학을 나온 인텔리로서 한 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멋진 친구였는데...

이마에 깊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세월 탓이니 누군들 막을 수 있을까마는 꿈을 잃은 듯한 눈동자와 웬지 자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옛날 같지 않았다.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일까. 그 때가 넘치던 당당함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모든 게 다 세월 탓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보였겠지. 소위 사오정을 지난 지가 아득한 옛날이니.

그래서 나는 꿈을 끈다. 세월에 밀려 몸이 부서져가도 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아니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 꿈을 끈다. 밤에도 꾸고 낮에도 끈다. 눈을 감고도 꾸고 뜨고도 끈다. 꿈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지 않는가. 그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이 곧 아름다움인 것이다.

고난이 이어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없음을 슬퍼하라. 가난하다 슬퍼하지 마라. 그 가난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없음을 슬퍼하라. 친구가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임을 슬퍼하라. 지식이 없음을 슬퍼하지 마라. 지혜가 없고 감성이 메마름을 슬퍼하라. 나이가 들어감을 슬퍼하지 마라. 호기심이 없고 꿈이 없음을 슬퍼하라.

꿈은 불확실한 미래의 등불이자 운전수이다. 갈 길을 비추주고 가야할 방향으로 자신을 운전해 주기 때문이다. 밤하늘에 북극성처럼 우리 자신의 좌표가 된다. 당신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당신이 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레는 가슴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 사회에 갈등이 참 많다. 전부가 '네 탓'이라는 책임전가 자세에서 '내 탓'도 있다는 자기성찰 자세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차체에 의식을 좀 높였으면 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변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순서가 있다. 먼저 꿈부터 꾸어야 한다. 꿈을 꾸면 변화하게 되어 있다. 어떤 꿈도 변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강렬한 꿈을 꾸어라. 그 꿈이 당신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변화의 현장으로 내몰 것이다. **KH**



## 강용일 원장

1949년 생으로 미국 버나딘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와 단국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다. 한국경제신문 및 (사)한국강사협회가 선정하는 명강사에 선정됐으며, 원원 성공전략, 자기혁신&자기경영, 부부화합기술 등을 주제로 방송과 기업, 공공기관에서 왕성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법무부 교화위원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Korea Way - 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

제1547회 5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글로벌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핵심가치를 명문화해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1위 기업을 추구하는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도요타 웨이(Toyota way)'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존중과 끝없는 개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30년 공직생활 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으로 일하는 3년 동안 세계적인 기업을 두루 연구해온 김병기 사장은 도요타자동차의 사례를 접목하여 글로벌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핵심가치 즉, 코리아 웨이(Korea Way)를 찾아냈다. 그가 말하는 코리아 웨이의 핵심은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 선택과 집중이다. 그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성장 우선 정책을 펴야 하며, 기업규제를 완화해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시대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노키아, 도요타, GE 등 글로벌 기업의 각종 사례를 들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전략을 제안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관리, 지속적인 창조경영 추구, 글로벌 브랜드의 육성, 윤리경영과 핵심 가치 관리 등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 김병기 사장을 초빙하여 거대한 외국기업과 쉼 없이 경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소통과 헌신의 정치리더십, 세종에게 배운다

제1548회 5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근 세종대왕을 국가 최고경영자로 재해석한 드라마 '대왕 세종'이 인기다. 올해 출간된 세종 관련 책만 해도 10여 종이 넘는다. '세종 따라잡기'의 특징은 그의 업적보다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경영에 도입하려는 기업도 있고 이를 배우고 가르치는 강좌도 줄을 잇는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이 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 당대의 문제 즉, 백성의 의식주 문제,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채용, 명나라와의 실리외교 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 글로벌 인재양성, 세계경제위기 대처 등과 유사한데, 세종이 이를 원만하게 해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이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는 '소통의 리더십'이다.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신하와 백성들과 대화를 거쳐 합일점을 도출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도 백성과 소통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세종 리더십의 기반은 독서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읽기와 정치현실에 대한 꼼꼼한 관찰을 통해 실력을 쌓고 지혜를 얻어 32년간 조선을 탄탄하게 경영했던 세종의 리더십은 오늘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정윤재 소장을 초빙하여 세종대왕이 보여준 소통과 헌신의 리더십을 오늘날 국가경영과 정치리더십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서울대 철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정책학 석사 | 제16회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기획관리실 사무관, 산업관세과장, 재정용자과장, 지역경제과장 |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구매계약과장 |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 | World Bank 자문관 |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기획관리실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비서관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사장급)

(저서) 왜 우리는 AAA를 원하는가-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 Korea Way-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



정윤재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소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서울대 정치학 석사 | 美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 | 영국 케임브리지대 국제문제연구소 방문교수 |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편집이사 | 현대사상연구회 회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 국제협력처장, 교수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 | 한국리더십학회 공공리더십위원장

(저서) 유교리더십과 한국정치, 세종의 국가경영, 정치리더십과 한국민주주의의 외



인간개발경제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에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해운공사 근무 | J.C.PENNEY 근무 | (주)화승 수출이사 | 한빛은행 비상임이사 | 한·이 비즈니스협회 초대회장 |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 | GLBH Holdings S.a.r.l 회장 | (주)케어라인 회장 | 라인기전(상해) 회장

<상훈> 한국산업포장수상, 다산경영상, 남세의 날 대통령상, 케어라인 '제10회 중소기업대상' 대통령상 차

<저서> 내가 연봉18억원을 받는 이유,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산다 차



**제롬 글렌(Jerome Clayton Glenn)**  
유엔미래포럼 회장

American Univ 철학과 졸업 | Antioch Graduate School 사회과학교육 석사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교육학 박사 | 페루 Recardo Palma University 명예박사 | 칠레 Miguel de Cervantes University 명예교수 | The Committee For the Future 공동대표 | The Future Options Room 대표 | Partnership for Productivity International 부대표 | American Council for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대표 | the Millennium Project, first of AC/UNU and now of WFUNA 대표

<저서> Future Mind, 2004 State of the Future(공저), Future Research Methodology Version 2.0 차

##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FILA KOREA

제1549회 5월 2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

2007년 4월, 휠라코리아는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50여개국 1만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4대 스포츠브랜드 휠라 본사를 인수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윤윤수 회장이 휠라에 입사한지 24년만의 일이다.

휠라코리아는 1991년 휠라의 한국지사로 출발, 설립 이듬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이후 6년간 매년 50% 이상 성장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엔리코 프레스 전 휠라 회장이 '휠라가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지만 휠라를 꽃피운 곳은 한국'이라고 했을 정도로 윤 회장이 이끈 휠라코리아의 성장세는 무서웠다. 1990년대 중반 18억원의 고액연봉을 받아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었던 그는 진실, 인내, 성실을 최고의 경영 비결로 꼽는다. 기업의 투명성도 이를 바탕으로 나온다고 믿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란 리더의 엄격한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그의 경영 철학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윤 회장은 이제 휠라의 글로벌경영을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위치를 다지기 위해 브랜드 고급화 전략과 함께 지주사가 있던 미국에서 3년 안에 매출을 4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해외출장길에 오르며 휠라의 신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윤윤수 회장을 초빙하여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휠라의 도전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미래예측과 인류사회의 미래전략

제1550회 5월 2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오늘날 인간의 신체는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전기구적인 규모의 집단지성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지능화된 거주환경에 수시로 접속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Conscious-technology'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무어의 법칙이 지속된다면, 25년 이내에 인류의 절반 이상이 인간두뇌의 성능을 가진 휴대용 전산기기를 이용하게 되며,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지식경제산업은 산업시대나 농경시대의 경제활동에서 요구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자택근무에 기반한 지식경제체제는 노동과 학습, 유희의 경계를 흐리며,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원거리 교육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유엔의 미래싱크탱크 유엔미래포럼의 제롬 글렌 회장은 그동안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지휘해왔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엔미래보고서'를 지난 11년간 작성해왔다. 그는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뇌의 기능과 가능성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은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며 "미래사회에 참여하고 적극 반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스템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기업, NGO 등의 지원을 통해 지구촌 15대 과제의 대안 및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국가미래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유엔미래포럼의 제롬 글렌 회장을 초빙하여 미래전문가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그들이 전하는 미래사회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 6월

## 변화를 즐기는 삶

제1551회 6월 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사람이 80년을 산다면 80분짜리 큐시트가 있어야 한다. 서른살이라면 30분이 경과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첫 장면보다는 끝 장면을 더 기억한다. 과거는 기억이지만 미래는 상상이다. 기억력보다는 상상력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한다. 성공하는 인생프로그램은 좋은 스태프와 출연자를 만나는 게 필수다. 인생극장의 유능한 스태프와 출연자들은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보다 '미소 짓는 창조자'를 더 반긴다. 언제나 시각을 열고, 시선을 데우고, 시점을 새롭게 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PD는 좋은 작가, 좋은 출연자, 좋은 스태프를 찾아내고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이다.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PD의 역할에 더해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연출력이 요구된다.

'인생에도 연출이 필요하다' 삶의 변화를 즐기는 주철환 OBS경인TV 사장의 지론이다. 방송국 PD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히트시키며 방송가에서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던 그는 대학교수로 변신해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고, 지금은 방송사 CEO로서 또 다른 변신에 성공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그는 변화를 즐길 것을 주문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7년 OBS경인TV 사장으로서 취임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완성해 가고 있는 주철환 사장을 초빙하여 성공하는 인생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PD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혁신이 미래를 창조한다

제1552회 6월 1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새로운 시장의 가치를 창출해 이를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경쟁체제에서의 새로운 가치는 분명 '혁신'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업계 리더로 성장한 SKT는 지난 20여 년 동안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대한민국을 정보통신산업의 선두 주자로 이끌어 오고 있다. SKT의 이러한 성장 뒤에는 끊임없이 조직과 비즈니스의 혁신을 강조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김신배 SKT 사장은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김 사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래시장을 개척하고자 컨버전스와 세계화를 화두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은 고객 최우선, 스피드와 유연성, 인재육성 전략 등으로 이어져 SKT의 성공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04년부터 SKT를 이끌며 '서비스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김신배 사장을 초빙하여 세계 정보통신시장을 선도하는 SKT의 혁신경영에 대해 들어보고 미래성장 동력으로써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철환 OBS경인TV 사장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고려대 국문학 석·박사 | 동북고 국어교사 | MBC TV제작국 예능1팀장, 예능국 차장, 편성실 부장직대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문화관광부 21세기 문화정책위원회 위원

<상훈>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백상예술상, 한국방송위원회 대상, 제12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차

<저서> PD는 마지막에 웃는다, 30초 안에 터지지 않으면 채널은 돌아간다, 시간을 디자인하라, PD마인드로 성공인생을 연출하라 차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 동양SHL(주) 경영지원실장 | 한국이동통신 사업전략담당 이사 | SK텔레콤 전략기획담당 상무, 수도권지사장 상무 | SK신세기통신 전략지원부부장, 사장실장 겸 정보시스템실장 전무 |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부장 전무 | 한국경영과학회 이사 | 한국 RFID/USN협회 회장 | (사)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맹정주** 서울시 강남구 구청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졸업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경제교육기획관, 예산심의관, 정책조정국장 | 재정경제원 국고국장, 국민생활국장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조달청 차장 | 국무총리실 경제행정조정관 | 한국증권금융(주) 사장, 상임고문



**김성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업 | 美 미주리컬럼비아대 산업공학 석사 | 美 스탠퍼드대 경영과학 박사 | 美 미시간대 객원교수 | 독일 Hagen/Bochum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 KAIST 산업공학과, 경영정책학과, 경영정보공학과 교수,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전자정부연구센터장 | 한국전문가시스템학회 부회장 | 동부정보기술 지식경영실장 부사장

(저서) 의사결정론, 결정이 결정한다-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정보기술과 의사결정, 다이내믹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외

### 좋은 도시를 넘어 행복한 도시로 - 강남의 비전

제1553회 6월 19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서울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인구 1천만 도시 가운데 하나다. 서울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한 서울은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이내믹한 도시로 평가받는다. 이에 서울은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환경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명실상부한 21세기 세계도시로의 업그레이드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강남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구(區)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마인드가 높고, 문화에 대한 수요 또한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강남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행복한 도시를 구정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맹정주 구청장은 대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강남구를 '존경받는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맹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담배꽂초와의 전쟁' '불법주차 단속' '불법간판 정리' '불법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목을 받아왔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0여년의 행정경험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강남구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맹정주 구청장을 초빙하여 강남구 경쟁력의 근원을 알아보고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비전을 들어보기로 한다.

### 위키디시전(WikiDecision)으로 풀어 가는 창조적 문제해결법

제1554회 6월 26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오늘날의 '변화'라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에서는 리더가 방향을 잘 설정하고 조직이 그 변화를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리더는 시장의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경쟁보다 한 발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앞서 나갈 수 있다. 리더가 문제를 발굴하고 스피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창조적인 문제해결 방법 및 스피드경영의 해법으로 '위키디시전(WikiDecision)'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위키디시전은 빠르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방법론으로 직원 참여형의 문제해결법인 워크아웃(Work-Out)의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트리즈(TRIZ) 방법론을 보완한 것이다. 여기에서 위키(Wiki)는 '빠르다'라는 뜻과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김성희 교수가 올 초부터 준비해 책으로도 출간한 위키디시전은 문제의 분석에서 실행계획의 마련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해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성희 카이스트 교수를 초빙하여 문제발굴에서 시작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창조적 문제해결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위키디시전에 대한 설명과 활용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54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결핍과 충만

4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박범신 작가 /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했다. 신춘문예는 작가가 되는 가장 화려한 등용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독 문단의 문턱이 높아서 이른바 문단의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활동을 하려면 뚜렷한 데뷔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신춘문예도 그 관문 중의 하나다.

## 작가로 산다는 것은 낙타가 비늘귀 통과하는 것만큼 힘든 일

그러나 78년까지는 무명의 신인작가였다. 신춘문예에 당선됐을 때는 유명해져서 먹고사는 것도 해결될 줄 알고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했다. 그러나 당선 첫날은 화려했지만 어디서 원고청탁 해주는 곳도 없고, 살 길이 막막했다. 작가가 소설로 먹고살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를 타고 비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데뷔 후 5년간은 문학으로 밥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였다.

그러다가 79년 <죽음보다 깊은 잠>이 그 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소위 문단에서 출판시장을 갖고 있는 인기작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불의 나라>와 <물의 나라>는 합해서 100만부 이상이 팔렸고, <풀잎처럼 늙다>도 수십만부가 팔렸다. 그러나 무조건 그 시기가 좋았던 건 아니다. 개발독재와 이념대립이 균림하던 70~80년대에 나는 영광의 '찬미미사'와 오욕의 '인민재판' 사이에 놓이는 경험을 했다.

## 인기작가의 절필과 작가적 상상력의 한계

1993년 결국 나는 절필을 선언했다. 젊을 때는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책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사랑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40대를 넘어서니까 '많은 여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한 여자의 깊은 사랑을 받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나의 소설은 어느 제단에 바쳐지고 있는가', '나는 바른 작가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소설 쓰는 기술자가 된 것은 아닌가' 등의 근본적 물음들이 지쳐있던 내면으로 몰려왔다.

당시 문화일보에 <외등>이라는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는데, 두 달만 있으면 연재가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설 쓰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작가로서의 상상력도 떨어지고, 자부심도 훼손되는 것 같아서 원고지를 한 장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날 아침 무조건 '연재를 중단하며'라는 짧은 원고를 가지고 신문사로 갔다.

그 때 원고의 요지는 이랬다. "나는 작가로서 이제 역사 연대표(年代表)를 아무리 외워 봐도 역사를 알 수 없고, 지구의(地球儀)를 아무리 돌려 봐도 세계를 알 수 없다. 내 상상력의 불이 꺼졌으니 더 이상 작품활동을 못하겠다. 작가는 무당과도 같은 존재인데, 무당도 기가 떨어지면 산으로 가서 정양하는 것과 같이 나도 이제 내 마음의 산으로 가서 내가 작가로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겠다" 그랬더니 편집부에서 원고



를 대충 보고는 뽑은 제목이 '박범신 잠정 절필하고 입산'이었다.

절필은 개인적으로 그동안 문학적으로 쌓았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일이었다. 용인의 외딴 오두막에서 남새밭을 일구며 보냈던 3년이 나로서는 은거의 시기였다. 그러나 막상 감옥 같은 곳에 혼자 갇혀 있으니 내 의지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밀어내고 버린 것 같다는 상처가 느껴졌다. 이른바 인기작가로 불같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독성이 차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처음 6개월은 그 독성이 빠지는 시기였다.

### 몸 안의 독성 빠지자 상상력의 우물 차 올라

사실 70~80년대 우리사회는 미쳐있었다. 이른바 100볼트 냉장고를 220볼트 콘센트에 꽂고 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되면 냉장고 코일이 타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코일이 타고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욕망을 220볼트에 꽂고 살았다. 우리가 가진 욕망은 애당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욕망, 조작된 욕망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코일이 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 독성이 빠졌는지 나무가 보이고 새가 보이고 자연이 주는 은혜가 느껴졌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입으로 소설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또 내 안에 언어들 이 차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능력도 없으면서 15년 동안 좀 더 유명해지고 독자들에게 사랑 받고 좀 더 강한 기득권을 갖고 싶어서 정신없이 쓰고 또 쓰다가 좌초했는데, 3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된 것이다. 상상력의 우물이라는 것이 물이 고여질 새가 있어야 하는데 계속 물을 떠내면 우물은 마르고 만다. 어찌면 나는 물이 고일 새도 없이 우물물을 떠내던 작가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내 우물에 물이 가득 차있고, 이제 그 넘치는

▶ 탁재용 흥안실업 회장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물만 받아내도 소설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3년 후 백기를 들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첫 작품이 <흰 소가 끄는 수레>이다.

평생 나를 유지하는 문학적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순정주의와 인간주의일 것이다. 장 회장님께서 나를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소개하셨는데, 언젠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킬리만자로 꼭대기를 오른 적이 있다. 그 때 오 시장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병풍이 돼 주세요"라고 했다. "무슨 병풍?" 하고 되물었더니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주시죠"라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뺏지도 않고, 가끔 가서 어드바이스만 해줘도 후배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이라는 자리는 대개 개발주의자들이 맡아 왔다. 그러는 동안 거대 도시 서울을 건설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불가사리 같은 도시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 시장은 문화시장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 보였다. 그래서 그런 거대 도시의 그늘을 걷어내는데 병풍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직 순정주의, 인간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본다.

### 야성과 희망, 도전정신을 잃어버린

#### 젊은 세대를 위해 쓰기 시작한 '출라체'

지난 10여년은 어떤 의미에서 대중을 등지고 살아왔다. 대중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중의 욕망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작가가 계속 따라가다가는 자기 길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소설을 연재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다. 항상 나는 새로운 독자를 좋아하기에 과감하게 제안을 받아들였고, 5개월 연재에 들어갔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나도 세 아이가 있지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야망도 없고 자기정체성도 없고 진취적이지도 못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위한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루카치는 60년대를 두고 '하늘의 별을 지도 삼아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 더 이상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자본주의가 주는 안락하고 달콤한 세계에 대한 유희를 인생의 목표로 착각하고 쫓아가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표준적인 지도가 없다.

나와 같은 과거 세대는 연애를 하더라도 정말이지 치열하게 했다. 부모와 친구와 떨어지고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등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나 컨트롤을 잘해서 과연 그 사랑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다. 바로 이런 발상 때문에 소설 <출라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 출라체 빙벽에서 인간의 실존을 찾다

최근 10년 동안 히말라야를 열 한번 쯤 갔다. 길게는 3개월씩 수천km를 얼음산이 내려다보고 있는 산길을 혼자 걸었다. 왜 히말라야에 빠졌는지는 모르겠다. 일종의 중독이었던지도 모른다. 출라체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서남서 17km, 남체 바자르 북동북 14km 지점에 위치한 6440m 봉우리이다.

보통 등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등정주의와 등로주의가 그것이다. 등정주의는 극지등반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많이 높이 올라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등로주의는 높이의 경쟁이 아니라 어떤 코스로 가느냐의 경쟁이다. 최소한의 장비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이 가지 않은,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코스로 오르는 방법이다. 현재 세계 등반계의 큰 조류는 등로주의 즉, 알파인 스타일이다.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서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대지는 우리에게 책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대지는 우리에게 저항하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저항하는 것과 붙어있는 위험한 순간에 가장 황홀하게 솟아오른다. 그 위험한 순간이 아니고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실존, 완전한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빙벽을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피켈 한번만 잘못 때리거나 발 한번만 잘못 디더도 바로 죽음과 직결된다. 가장 실존적이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순간이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알파인 스타일이야말로 그런 등반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히말라야를 찾았을 때, 두 젊은 산악인 박정현, 최강식이 출라체 북벽을 올라갔다. 그런데 내려오는 도중에 뒤따라가던 최강식이 크레바스에 추락했다. 등산가들은 보통 안자일렌 상태라고 해서 로프로 연결해서 걸어간다. 그런데 요즘은 안자일렌을 잘 하지 않는다. 안자일렌했다가 한 사람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까지 끌려들어 가서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7천좌 이상 올라가면 산악인들은 각자 자기 존재를 자기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 둘이 안자일렌 상태로 가다가 뒤에서 최강식이 떨어지니까 앞에 가던 박정현이 피켈을 찍어서 간신히 견뎠다. 그러나 로프가 몸을



▶ 박범신 작자가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감으면서 박정현의 갈비뼈가 부러졌다. 최강식도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부딪치면서 한쪽 발목이 부러졌다.

크레바스는 단순한 굴이 아니라 들쭉날쭉 돌이 나와있기도 하다. 그런 곳에서 최강식은 밧줄에 매달린 상태가 된 것이다. 박정현은 위에서 피켈을 박고 90kg 가까운 최강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순간 박정현은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최강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견뎌 주는 것이다. 견뎌워서 스스로 올라오면 좋은데, 견디는 것도 힘의 한계가 있다.

영하 20도가 넘는 얼음 바닥에서 피켈을 박고 견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그때가 되면 크레바스에 매달려있는 사람도 죽어야 하고, 그걸 견디는 사람도 죽어야 한다. 그래서 산악인 모랄로 보면 이 때는 로프를 끊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강식은 한쪽 발목에 의지해 사투를 벌인 끝에 크레바스를 기어올라왔다. 결국 둘은 살아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끌고, 피켈질을 많이 하다 보면 손끝에 타박상을 입게 되고, 타박상을 입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 동상이 빨리 온다. 두 사람은 살아 돌아왔지만 박정현은 손가락 8개와 발가락 대부분을 잃었다. 그리고 최강식은 손가락 하나를 제외하고 발가락과 손가락 9개를 잘라내야 했다.

## 출라체가 던지는 다섯 가지 메시지

내가 출라체를 지날 때가 바로 그 등산사고 직후였다. 소설 <출라체>



는 바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로프 하나에 의지해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두 형제의 이야기다. 인간의 위대한 도전정신과 의지,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휴머니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다. 소설을 통해서 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다섯 가지 메시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소설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이다. 정체성은 일상의 습관적인 삶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체성은 극한 상황에서만 확인된다.

자본주의 경쟁구조에서의 삶은 이미 얘기한 대로 조각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과 원하지 않는 삶의 구분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 소설은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어떤 실존적인 순간에 정체성이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안 된다'는 폴 발레리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삶의 역동성을 믿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자기 삶을 지켜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역동성은 내부의 자기분열에서부터 온다. 내부에서의 끝없는 결핍과 충만에 대한 끝없는 욕망. 그런 내부의 결핍과 충만 사이의 가파른 단층이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 자신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 소설에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등장한다. 그들의 내부에는 서로에 대한 갈등과 원망, 그리고 상처가 있다. 하지만 둘은 산을 통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싶은 또 다른 그리움이 상처되어 있다.

그들이 출라체의 빙벽을 목숨을 걸고 올라왔을 때 본질적인 에너지는 바로 그 내부적인 단층에서 온다. 그런 내부적인 단층이 심할수록 그의 몸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동성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력한 결핍과 충만에 대한 의지 사이의 단층을 활용해서 탄생하는 것이다. <출라체>는 바로 이 역동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세 번째는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등산가들은 보통 산을 오를 때 3가지의 용기를 가져야한다고 한다. 직장과 가정 등 일상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목숨을 걸고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용기, 다시 일어나 복귀할 수 있는 용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용기는 결코 산악인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선을 바꾸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집중력은 자기 몸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감각이 중요하다. 감각과 직

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광에 의해서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서 서울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만 살던 사람이 남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는 그 순간, 한 눈에 보이는 서울을 보면서 평생 서울에만 살았던 사람보다 서울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직관, 몸의 감수성이라는 것은 블랙홀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집중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사람은 하루만 굶어도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적의 것을 빼앗고, 친구를 버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짐승이다. 동물이나 같은 것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으로서의 두 가지 욕망, 식욕과 성욕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하는 분배구조가 이른바 문화라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최저층의 욕망을 추구하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영혼과 직관을 통해 우주를 내다볼 수 있다. 지구의 한계를 떠나서 우주를 품에 안고 그 넘어까지 가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시공창으로부터 저 우주 끝까지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스펙트럼의 넓이라는 것은 최밀바닥, 지상으로부터 우주의 끝, 하늘의 끝까지 가장 시공창 같은 인간으로부터 신과 같은 반열까지가 인간의 영혼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과 같은 인간과 시공창의 짐승과 같은 인간 사이를 잇고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 이 소설은 바로 그 언어를 통해 그 사이에서 길을 내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랄의 최저층에서 어떤 위험한 순간에 사람이 결코 짐승이나 시공창에 머무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개방성을 견지해야 한다.** 지금은 인터넷시대이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디지털화 될 수 없다. 강력한 아날로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체성이나 도덕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가 가고 있는 디지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즉, 정체성, 역동성, 집중력, 도덕성 등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개방성이다.

우리 세대의 작가들은 사실 글만 알면 되겠지 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작가들은 글만 알아서는 큰일 난다. 모든 것을 알아야 작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 그럴 것이다. 결국 정체성, 역동성, 집중력, 도덕성을 중심에 굳건히 세우되 외부 세계에 대해 끝없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출라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나를 뾰고 있는 큰 획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출라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평생의 한 축이기도 할 것이다. **김지현**

# 해양강국을 꿈꾸며, 역사에 남을 박람회 준비에 최선 다할 것



장승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지난해 11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여수로 확정된 후 4개월 여가 흐른 지난 4월 11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범국민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성공 개최를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선진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또한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한승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장승우 조직위원장은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를 차질없이 준비해 세계박람회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대회로 치르기 위해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사임하고 조직위로 자리를 옮겼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지역이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할 뜻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관광개발과 함께 자연스러운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조직위의 구상이다. 한편 조직위는 박람회를 통해 해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바다가 처해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동노력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2012년 5월 12일, 우리나라 남해안 바다가 세계를 향해 그 모습을 활짝 드러내는 역사적인 날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찾아 장승우 위원장으로부터 해양시대를 대비한 박람회 준비사항을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사진 오경근 원장

## 장승우 위원장

1948년 생으로 서울대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7회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통계청장, 기획예산처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을 거쳐 동원금융지주 상임고문, 한국투자금융지주 의사회 의장 겸 회장으로서 기업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출범과 함께 조직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를 위해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직을 사임하셨는데요. 취임하신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해양에 대한 이해가 넓다는 점에 대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 통계청 및 금융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조직위원장이라는 국가적 중책을 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 4월 8일 장승우 위원장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에 취임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로 앞으로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준비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BIE(세계박람회기구)의 공인박람회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 두 종류가 있는데, 여수는 인정박람회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개최돼요. 외국인 관람객 50만명을 포함해 800만명이 박람회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일본에서 개최된 아이치박람회 때는 2천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고, 중국에서 열리는 2010 상해박람회에는 관람객이 7천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열리는 박람회이다 보니 동아시아국가간에 비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운영 노하우나 소프트웨어 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작지만 내실있는 준비로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 개소식을 갖고 조직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간략하게 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3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그에 따라서 지난 4월 11일 조직위원회가 개소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는 1실 3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홍보, 마케팅, 운영, 재정, IT사업 등 조직위 운영과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본부는 박람회 기본 계획과 사후 활용 등의 전략수립과 관계기관 협조 업무를 맡고 있으며, 조성사업본부는 기반시설과 전시장 시설, 엑스포타운 구축, 민자사업 추진 등 행사장 부지조성과 건설에 관계된 일을, 대외협력본부는 BIE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해외국가와의 협조, 참가국 유치, 해외홍보 등의 국제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직위 인력은 현재 80여명으로 다소 적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박람회 인정 신청, 전시 콘텐츠 개발 등에 역점을 두는 방향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향후 업무량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아웃소싱과 외부의 우수한 전문인력 충원 등으로 역량 확대를 꾀할 계획입니다.

**4월 25일에는 여수에서 첫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구인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시죠.**

정부지원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으로는 관련 정부부처 장관 및 지자체 단체장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죠.

지난 25일 열린 첫 회의를 통해서 박람회장 KTX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정부 지원과제 개발, 기반시설 기본설계 등 박람회 사업 지원기반 구축, 여수프로젝트 등 대 회민국 공약사항 이행 등 4대 과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수 순천간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및 철도사업(3,215억원)과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사업(6,189억원) 예산을 2007년 대비 약 1,313억원 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위원회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특히 올해는 BIE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공식 승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인정신청서 승인 이전에는 박람회 참가국 유치 등 공식적인 활동이 힘들거든요. 박람회의 법적 재정적 수단, 주제, 개최 기간, 사후 활용 방안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BIE 인정신청서를 5월 12일까지 BIE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종합계획 및 분야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겁니다. 또 박람회 개최 시 해양과 연안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2012 여수선언'의 이행 방안을 도출하고, 개도국의 참가를 지원하는 '여수프로젝트' 시범사업도 내년부

터 착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유사 박람회에 적극 참가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순회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회원국 및 국제기구의 참가와 협력을 유도하고 내외국인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행사인데요. 박람회 개최에 따른 여러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입니다. 박람회를 통해 현재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세계인이 공유하도록 하는 종합행사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대단히 큼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10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9만명 가량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남해안권 관광개발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나아가 박람회를 통해 세계에 우리나라

**앞으로 다양한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에 특별히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냐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해안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돕는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SOC 건설 등은 소관 부서의 지원 아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 개최 준비에는 SOC 건설 외에도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해당사업과 연계하거나 신규로 발굴해 지원해 주신다면 개최 준비에 큰 힘이 될 겁니다.

**박람회 개최까지는 4년이 남았습니다. 2008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박람회 부지 조성 및 시설 건축 및 각종

▶ 정만기 회장과 장승우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다. 바다와 연안은 인류에게 자원과 식량을 제공하고, 기구의 대기 및 열의 순환조절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인류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의 위상과 국가브랜드 창출 효과를 높이고,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 준비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그동안 여수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여수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지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재계와 여수시민이 합심해 BIE 회원국을 상대로 벌여온 우리나라의 '총력외교'가 성과를 이루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수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수세계박람회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엑스포'라는 이름의 지역행사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각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의 정확한 위상과 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포럼이나 세미나 등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앞으로 여수세계박람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부분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무엇보다 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기본구상을 빨리 개발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활용 문제도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성과 국제수준의 시설 배치계획, 최첨단 전시계획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년이라는 넉넉치 않은 시간 동안 박람회 직접시설, 교통 인프라 구축 등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시는 등 그동안의 활동이 바다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다는 수산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수자원의 보고입니다. 아울러 기후를 조절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며, 물류수송의 통로 역할을 하는 가교이기도 하죠. 21세기는 결국 해양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시대입니다. 세계가 지구온난화의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리우데자네이루 선언과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 머리를 맞댄 이유도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죠.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해양을 주제로 하는 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조선업, 수산업, 해운업 등 해양 관련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바다가 사람들의 쉽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이에 이번 기회에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인류공생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해양환경과 해양과학기술 분야를 강화함은 물론, 해양자원 개발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따라서 이번에 개최될 여수세계박람회는 여수지역의 꿈과 희망을 우리나라 전체로 확산시켜 '세계 5대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는 토대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람회를 계기로 바다가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사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33주년을 맞은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마침 박람회가 열릴 여수에서 2005년도에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아카데미를 통한 학습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인간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21세기 인재가 경쟁력인 시대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지난 33년간 연구원이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내면서 한국기업의 위상 제고, 경영자의 자질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많은 기여를 해오신 점,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 해오신 점 등은 정말 국가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대, 앞으로도 연구원이 변화의 중심에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해 가시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

# 섬김리더십과 VICTORY 리더십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지**난 호에 창조경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므로 이번 호에는 섬김리더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섬김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숙명여대의 섬김리더십은 유명하다. 이경숙 숙대 총장은 섬김리더십을 표방하고 실천하여 숙대의 혁신에 성공했다. 그는 개성이 강한 대학사회에서 네 번이나 직선 총장에 선출되었다. 4선 직선 총장에 추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섬김리더십의 위력을 웅변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 지식사회 도래와 섬김리더십

###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계적 명문여대 기틀 마련

지난 14년 동안 그는 직선 총장에 네 번이나 선출되면서 1,000억 원의 기금을 모아 숙대에 혁신의 돌풍을 일으켰고 세계적인 명문여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CEO총장으로서 숙대를 혁신으로 이끈 업적을 인정받아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어 새 정부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섬김리더십을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섬김리더십의 모델을 그는 성경에서 찾



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섬김리더십의 좋은 사례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섬김은 정직과 겸손, 언행일치에 뿌리를 둔다.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인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며, 이기적인 경쟁과 갈등의 벽을 허물어 조화와 협력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출발점이다."

이 총장은 이런 자세로 교수와 직원을 섬기고 학생들을 섬겼다. 물론 처음에 섬김을 부르짖을 때 "진심일까?"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그는 섬김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었다.

## 기존 리더십 이론 접목돼야 진가 발휘

### VICTORY 리더십 실천

섬김리더십은 섬김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섬김다는 것이 자칫 비전이나 실적과는 상관없이 논의되면 연약한 리더십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김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 접목되어 추진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총장의 섬김리더십은 비전(Vision), 전문성(Intelligence),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시간관리(Time management), 열린 마음(Open-mind), 책임감(Responsibility), 긍정적 사고(Yes)와





이경숙 총장이 숙대에서 실천한 섬김리더십은 비전(Vision), 전문성(Intelligence),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시간관리(Time management), 열린 마음(Open-mind), 책임감(Responsibility), 긍정적 사고(Yes)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7가지 항목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하면 'VICTORY'가 되어 그 자체로 승리의 리더십을 나타낸다.



연계되어 있다.

이 7가지 항목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하면 'VICTORY'가 되어 그 자체로 승리의 리더십을 나타낸다. 이 총장이 숙대에서 실천한 섬김리더십을 VICTORY 리더십과 연계하여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세계 최고의 리더십대학이라는 꿈과 비전(Vision)을 세웠다.**

구성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 총장은 1994년에 취임하면서 조직의 정체성이 표류하고 있을 때 최상의 명문여대, 1,000억 원 모금, 세계 최고의 리더십대학 등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둘째, 전문성(Intelligence)을 중시하여 전문가를 발탁했다.**

아마추어는 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의 주변에서 서성거린다. 그러나 프로는 기본과 원칙을 잘 알고 있고 그것으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며, 문제해결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 이 총장은 보직교수를 발탁할 때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 열정을 보았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노력한 덕택에 인사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총장이 알면 말단 직원도 안다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중시했다.**

조직 구성원들을 조직의 목표에 자발적으로 집중하게 하려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조직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 이 총장은 '총장이 알면 말단 직원도 알아야 한다'는 소통의 원칙을 세우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했다. 학교의 모든 정책은 매주 3회 열리는 처장회의와 매주 1회 개최되는 교무위원회에서 열띤 논쟁을 통해 결정된다. 또 그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학교 예산 및 지출도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물품 구매는 경매사이트인 옥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탁월한 시간관리(Time Management)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말을 버릇처럼 말한다. 물론 중요한 자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데도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총장은 늘 바쁘지만 행복해 보인다. 중요한 일을 항상 먼저 하면서 철저한 장단기 목표를 세워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 있는 시간관리를 하고 있다.

**다섯째, 섬김은 열린 마음(Open-mind)에서 나온다.**

이 총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보직교수들에게 직원들이나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을 강조한다. 이 총장에게는 몸예뻐 행동 하나가 있다. 총장실을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총장 자신이 직접 엘리베이터까지 나와 밝은 미소로 배웅하는 일이다.

**여섯째, 모든 책임(Responsibility)은 리더에게 있다.**

이 총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숙대로 가득 차 있다. 항상 숙대 뺨지를 차고 다닌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입학처장을 지낸 박동곤 교수는 "총장에게는 오직 숙대의 발전만이 관심사이다. 외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들으면 곧바로 숙대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다. 사실 총장 자리가 한두 번은 몰라도 네 번을 할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 보직교수도 2년 하면 싫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장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이다.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모를까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설명한다.

**끝으로 긍정적인(Yes) 태도를 들 수 있다.**

이 총장은 한 마디 말에 창조의 능력과 파괴의 능력이 있다는 교훈을 알고 있다. 취임 초 막대한 액수의 세금금지서가 날아들고 어려움이 가중될 때, 각 처장들이 총장실에 들어올 때는 오래 한숨부터 쉬었다. 총장은 이런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한숨을 내쉬면서 죽겠다고 말할 사람은 절대 총장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어휴, 죽겠네!"라는 말 대신에 "어휴, 살겠네!"라는 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힘든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덩달아 일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섬김리더십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리더들에게 섬김리더십과 VICTORY리더십을 익히고 실천하여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 사회가 불안하면 증시도 불안할까?

우승택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과학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땅은 여전히 평평해 보이고, 지구가 태양을 돌기보다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금융시장의 본질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실 아닐 수도

#### 서브프라임 위기는 이미 종료

도대체 시장이란 무엇일까? 증권시장은 가격이 정해지는 곳이며, 모든 정보가 반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보가 반영된다는 말은 그 정보가 그 기업이나 사업 혹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자동적으로 득실이 계산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에 미래의 정보가 현재가치로 '할인'되어 나타난다고도 한다.

2007년 말부터 세계증시를 위협하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언제까지 전 세계에 경기부진, 추가폭락,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며 아직도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그렇까? 미국의 집값은 12년 동안 꾸준히 올랐다. 그리고 2002년부터 그 린스핀을 비롯한 경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미국 집값을 걱정했다. 그러다가 2007년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2008년 1월 해당 금융기관과 주가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앞으로 또 어디가 터진다고? '터지려면 터지라지...'가 정답이다.

이미 모두 끝난 것이다.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시장이 불안한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의 여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끝났다.

한미FTA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구 3억의 미국경제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을 더하여 3억5000만의 경제가 되는 것이고, 한국도 인구 5,000만의 경제에서 미국인구를 더한 3억5000만의 시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시장과 낙폭이 큰 중국시장도 매력적이지만 글로벌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바로 한국이다.

### 알려진 정보는 이미 정보력 상실

#### 시장은 사실과는 거꾸로 움직이는 곳

1942년은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해이다. 1936년 독일은 히틀러가 베를린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세계제패의 야욕을 전 세계에 드러내 놓고 있었다. 그리고 불안 불안한 가운데 1942년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다시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해 S&P 500은 20%나 상승했다. 1943년에는 26%가 상승했다. 미국이 고전하고 일본이 태평양을 제패하던 1944년에는 20% 넘게 상승했고, 1945년과 1946년 말까지 다시 36%가 상승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그 이유는 이미 알려진 정보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1985년, 1986년, 그리고 1987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라는 무역후자 100억불을 3년 연속 달성했다. 그리고 나라는 조금 시끄러웠지만 1988년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가는 1987년을 정점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었고, 올림픽이 끝난 후 1989년에는 강동계좌 정리는 주가 대폭락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과는 거꾸로 움직인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미리 주가가격에 다 나타나서 반영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할 때쯤이면 이미 효력을 다해 그 기세가 거꾸로 간다는 소리다.

1985년 일본을 보자. 그 때의 일본은 모든 나라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일본 기업들의 per는 거의 100배에 달하는 기업도 많았고, 그 때 사람들은 "일본은 틀려. 펀더멘탈이 완벽해" 등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동방불패와 같은 신화 속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엔 대비 달러 환율이 1달러당 250엔에서 80엔대로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1989년 일본에 대한 모든 기대는 바뀌고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에 예외일까? 정말 'This time is different'일까? 올림픽을 앞둔 중국, 티베트 사태, 위안화 강세. 정말 중국기업 per 50배, 60배는 당연한 것일까?

### 중국, 우리나라 80년대 상황과 비슷해

####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은 과거에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는 중국의 경기와 많은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까지 경기침체가 걱정되고 있다.

중국의 물가상승, 정치불안 등을 보면 우리나라 1987년이 생각난다. '임금을 올려달라', '자유를 달라'라고 데모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임

금의 상승, 물가의 상승, 고비용구조의 한국경제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회 현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신발, 합판 등 우리나라의 중추 산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우리의 저력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많은 기업들이 명멸했으며 주식투자자들은 한숨의 나날을 보냈다. 지금의 중국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본격적인 경제살리기에 몰입을 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도 기다려진다. FTA는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구 3억의 미국경제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을 더하여 3억5000만의 경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인구 5,000만의 경제에서 미국인구를 더한 3억5000만의 시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에 따라 승리는 달라질 것이다. 과연 그것 만일까? 아니다. 미국은 북한인구 2,000만도 보고 있고, 13억 중국, 1억의 일본과도 우리나라를 통해 간접무역을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도 우리를 통해 미국과 간접무역을 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닐 것이다. 글로벌시장에서 한국경제를 보아야 한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끝났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풀어놓은 자금과 낮추어진 금리는 이미 저 멀리서 진도 2 정도로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도 3, 진도 4, 진도 5, 진도 6이 되며 미국주식을 올려놓을 것 같다.

미국시장이 살면 중국시장에 대한 구매가 늘어나고, 그러면 한국기업의 수익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올 9월까지의 적극적으로 투자시장을 보아야 한다. 특히 미국시장과 낙폭이 큰 중국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일 매력적인 시장은 역시 한국이다. **김재민**



#### 우승택 센터장

1960년 생으로 한국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MBA과정을 수료했다. CPA항공 ACCTS, 유화증권, 삼성투자자문을 거치면서 99년 우리나라 최초로 PB를 도입 실행한 인물이다. MBC '경제야 놀자'에 출연해 일반인들에게 자산관리 노하우를 전해줬다. 현재 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 겸 호เทล신라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며,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PB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 이청 군수

1957년 생으로 전북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지평중, 군포중 교사, 영국 런던, 맨체스터 한 인학교 교사, 경기도 귀인중, 공내중 부장교사 등에서 오랜 교사생활을 해온 교육공무원 출신이다. 중등학교 교감을 끝으로 27년간의 교육학사행정을 마감하고, 지난해 12.19 재선거에서 당선돼 군정을 이끌고 있다. 교육행정에 대한 공로로 교육부장관상을 2회 수상하기도 했다.

#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 되겠습니다

이청 전남 장성군수

전국 유일의 여성군수로 취임 시 유명세를 탔던 전남 장성의 이청 군수. 교육계에 몸담았던 30여년의 경험과 여성의 부드러움, 섬세함을 바탕으로 섬김리더십을 펼치는 이 군수의 군정활동이 전국적인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취임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하루 25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현장을 누비는데 여념이 없다. 주중에는 발이 부르토도록 민생현장을 달리고, 주말에는 중앙정부를 오가며 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한다. 이런 노력으로 장성군은 이 군수 취임 후 17개 기업 유치와 616억원의 투자효과, 600여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로 '주식회사 장성군 재창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이 군수는 모든 행정에 있어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위민행정을 펼치고 있어 장성군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두텁다.

올 10월 국가개발촉진시범사업 승인을 계기로 '장성군의 지도를 바꾸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이청 군수를 만나 섬김리더십의 행정서비스와 장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취임 4개월이 지나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2008년을 '투자유치 총력 추진의 해'로 선포하고 수도권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취임 4개월 여 만에 17개 기업을 유치해 616억원의 투자효과와 62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장성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장성군이 교통여건과 인력수급에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주시 하남공단과 평동공단에 인접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죠. 행정적으로도 부지를 DB화하여 알선하고 기업인들이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윈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해관계인과의 민원문제까지 해결해주는 토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욱 더 입지조건이 좋아질 겁니다. 이 달 안에 동화종합전지능공단지 조성사업이 착공되고, 진원·남면 일원에 나노지방산업단지도 조만간 발주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기업들이 줄지어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0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창출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 장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장성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부자농촌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44%가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구조와 소득기반이 취약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군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전 공직자가 1인 1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이청 군수 취임 후 장성군에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습니까.

심혈관 질환은 성인 주요 사망원인 28.1%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또한 급속한 노령화로 심혈관 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군은 첨단의료기술과 기기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와의 연계효과가 크고 교통의 요충지로 심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응급조치망 구축이 용이하죠. 또 나노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 확정과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심혈관계 치료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전남대 의대 정명호 교수가 장성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해 지난해 5월 전남대와 공동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Thomas 독일 QualiMed사, 에이엠지코리아사, 전남대 의대, 나노생물실용화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심혈관계질환 치료기기 국제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한나라당 지역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우리군에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약속한 바 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낙후지역 발전과 심혈관 질환의 국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이 주관이 되어 '호남지역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TF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취임하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하셨는데요.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의 원칙'은 어떤 겁니까.**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있는 반면에 행정의 사각지대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위민행정(爲民行政)의 근본이며, 그래야만 군민이 이해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행정의 원칙도 이러한 군정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어요. 군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이를 행정에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그리고 사회복지체계를 잘 구축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원칙도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한 창조적인 실용행정의 연장선상에서 설정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부서간의 정보공유와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 부서 업무만 신경 쓰거나 부서가 따로 움직이는 곤란하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꼭 일선의 실무진들에게도 전달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여성군수로 유명하신데요. 군정 추진에 있어 여성으로서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다니 반갑기도 하고 더욱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성은 선비의 고장이자 유림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최초로 여성군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장성발전을 위한 저에 대한 강력한 주문으로 여겨져 취임 초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러한 부담감은 저에게 강력한 동력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우리나라도 여성총리, 각 정당의 여성대변인, 여성정치인, 여성 총장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따뜻함과 부드러움, 남성이 갖지 못하는 섬세함으로 노인복지, 여성과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을 소신있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이런 강점은 투자유치를 위한 외부인사 미팅 때에도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장성아카데미가 올해로 13년째에 접어들습니다. 교육계 출신으로서 교육에 대한 의지 또한 남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 30여 년간 교육계에 종사했기에 누구보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키우기 위한 투자 없이는 그 어떤 조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고 할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인 자기개발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은 군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지역발전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성아카데미가 13년째 계속되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군은 그동안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어요. PC보유량이 부서별로 겨우 1~2대에 불과했던 시절에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하고, 청와대보다 먼저 전국 최초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 최초 C와 B를 개발하고 전국 자치단체 최초 문화사업인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하기도 했죠. 현재는 홍길동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제작, TV애니메이션 제작,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유능한 지식인 한 사람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반복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통해 '잘사는 부자농촌'을 실현



▶ 홍길동 캐릭터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었다.



▶ 양병무 원장과 이청 군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성아카데미를 다녀가신 한 강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장성아카데미가 13년을 이어오면서 장성의 지식수준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성아카데미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제별 일회의 강연으로는 배움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충고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느끼는 게 많았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도 있겠지만 분명 내부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카데미 1년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한 분야의 강연을 4~5회 정도 집중 강의를 하는 겁니다. 분야별로 집중 강의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제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연구가 더욱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장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농복합형 친환경 신도시, 부자농촌' 건설입니다. 우리 장성군은 광주 대도시권과 인접해 있고 광주전남과 전북을 잇는 호남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또한 KTX 정차역이 있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죠.

산자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청정장성의 친환경 농산물이 풍부하고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준 높은 주민의식과 교육수준으로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대한민국 혁신지자체의 대표브랜드로 명성이 높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군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장성의 대 역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성군의 지도를 바꿀 국가차원의 장성군종합개발사업인 '국가개발촉진사업'이 그것입니다. 올 10월 경 정부의 최종 개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9개 단위사업에 연관 사업비만도 약 1조원 규모에 달하는 장성의 미래를 뒤바꿀 역사적인 사업이죠.

▶ 동화전자농공단지 조감도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 장성군은 깜짝 놀랄 고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나노기술산업단지와 동화전자농공단지가 조성되고 호남복합물 터미널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장성은 첨단산업지와 물류 거점 도시로 변모하여 재정자립기반을 대폭 확충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성 또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미래성장의 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장성에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장성8경이 뛰어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기단풍으로 유명한 고불총림 백양사, 피톤치드 삼림욕의 최적의 장소로 알려진 죽령산휴양림, 소설 속의 주인공을 실존인물로 재조명한 홍길동생가 등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만큼 유명관광지가 되고 있죠. 특히 5월 초에 열리는 제10회 홍길동축제는 우리군이 신활력사업으로 13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과 기존의 테마파크관광지가 조화를 이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역관광전략은 소규모 생산이나 시설로는 다른 지자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와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관광산업을 추구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또한 '국가개발촉진사업'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선 죽령산의 의료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함동저수지 일대의 상무평화호수공원 관광지 조성,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생태체험학습관광의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와 함께 500만 장성 관광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의 복합전원주택단지가 될 1천세대 규모의 남면 덕성리 행복마을과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제1호 행복마을인 황룡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장성은 전원주택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 장성에서 거주하며 광주 등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새로운 U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설립과 함께 건설될 200세대 규모의 농촌 뉴타운과 30만평의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6차 융합산업의 새로운 대안농촌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농협, 농민단체와 동행하여 일본 아오모리현의 유통체계와 영농기술 등 선진 농정정책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다시 돌아오는 돈 버는 부자농촌, 세계적인 명품 군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군민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결코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과 희로애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장성의 지도를 바꾸고 장성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친환경 신도시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그날까지 5만 군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장성발전을 위해서라면 '너와 내가 따로 없이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세히**



# 삶의 행복학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부**처님은 사람의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 등을 사람이라면 모두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스러움에서 자유함을 찾기 위해 구도의 길을 찾아 출가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버림으로써 불심(佛心, 空心)하여 '자기'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見性), 참 진리에 이르게 된다(得道). 또한 참 진리를 찾음으로써 마음의 즐거움(幸福)을 누리게 된다(法悅). 생로병사의 인생고해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관리에 있음을 깨달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진리를 확립한 것이다. 이른바 부처님의 행복론이다.

경제학의 대석학 조순 박사를 인간개발연구원의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지내오면서 가끔 조순 박사의 주례사를 통한 '결혼행복론'을 들어왔다. 신랑 신부가 한 쌍의 부부가 된 것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함이며, 행복을 성취하는 비결은 행복하게 사는 성공습관을 길들이는데 있다고 한다. 새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성장배경이 다른 가족들간의 관계를 통해 만족하고 기뻐할 일도 있지만 참기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된다. 그러나 즐겁고 괴로운 일들을 불만, 불평하기 보다는 범사에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습관이야말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오신 인생원로의 교훈으로 여겨진다.

인간개발연구원을 시작하고 33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필자의 깊은 관심사는 PT(People Technology)에 있음을 본관을 통해서 몇 차례 언급해왔다. 필자가 추구하는 PT의 기저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긍정적 자세와 낙관론이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존재양식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기가 지닌 무한한 가치와 그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최고의 자기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발견과 자기확신이 주는 강한 생명력으로 인하여 더욱더 큰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행복의 심리학〉의 저자 다니엘 네틀(Daniel Nettle)은 '행복비판론'과 '행복낙관론'으로 행복론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직접적인 목적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에서 가장 벗어난 존재다'라고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의 저자이자 행복비판론자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그는 불행과 행복은 삶의 예외현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의 규칙이라고 보면서 '일, 근심, 고민거리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 지고 가는 운명'이라고 했다.

다니엘 네틀이 그의 저서에서 역설하고 있듯이 인간은 경제적 불확

실성에서부터 악화된 건강, 짝사랑, 그리고 평생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실망, 평생을 가약한 사람들과의 이혼, 애지중지한 자식을 잃음과 갈등 같은 수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실상이다.

행복비판론과 반대되는 행복낙관론의 주장은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운명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시대의 풍자시인 유베날리스(Juvenalis)는 "대중들은 오랫동안 근심 걱정거리를 버리고 단지 '빵과 서커스' 두 가지만을 간절히 바랬다"고 했다. 즉, '생계(甞)와 최소한의 오락(서커스)'이라는 기본 욕구만 충족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다니엘 네틀은 인용한다.

유베날리스가 '빵과 서커스 가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거나 매우 행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러시아 5.03, 인도 6.03, 일본 6.53, 한국 6.69, 중국 7.05, 영국 7.48, 미국 7.71, 스위스 8.39 등으로 나타났다.

다니엘 네틀은 행복낙관론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은 푸짐한 식사를 한 후 느끼는 식욕과 같다. 아주 배부르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든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하게끔 하는 '행복시스템'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떤 생명을 가진 유기체도 단기간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만족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항상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한다.

이와 같이 행복비판론과 행복낙관론 사이에는 영원한 갭이 존재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우리들이 동원하는 대안은 향수, 종교, 약물, 수많은 소비재 식품, 그리고 향락산업과 스포츠게임 등이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석가모니 부처님은 "행복과 불행은 결국 마음이 결정하니 마음을 비우고 참 진리를 발견하라"고 한다. 참 인생의 의미는 생로병사와 같은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취하게 된다.

기독교는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며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마음은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다. **www.khdi.or.kr**

제48회 진안군 '진안마이학당' 4월 3일(목)

# 농산물 유통전략과 불투명한 농촌

이상영 농협대학 경영고문 / 전 농협유통 사장

2006년 개강해 매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진안마이학당'은 본원과 진안군(군수 송영선)이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진안군은 각계의 경륜있는 강사들을 초빙하여 마이학당이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 49회 강연을 해주신 이상영 고문의 강연을 요약해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ndi.or.kr

농협은 마케팅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마케팅협동조합은 경제규모가 커서 5~20개의 농가가 물량을 집합해서 팔 수 있는 마켓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협동조합이 영세농부터 부농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대규모 농가들을 우선하다 보니 영세농은 힘들 수밖에 없다. 영세농은 국가가 책임지고 마케팅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게 한다면 정부와 협동조합의 역할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시장 환경

농산물 유통전략에 있어서 나는 우리 농산물에 자신이 있다. 물론 지키는 과정이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달고 고소하고 단단한 농산물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안정성만 뒷받침된다면 소득수준이 3~4만달러로 증가할수록 더욱 각광받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그러나 당장은 정말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세계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FTA로 인해 농민은 지금보다 더 소외되고 벼랑으로 물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장르를 모색하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농업부문만으로는 농촌의 활력을 찾을 수 없다.

예전에는 농산물 가격만 지지해주면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WTO에서 가격지지가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하여 금지하면서 가격지지에 대신 농가소득이 떨어지면 소득보조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금년부터 경관보존직불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목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등으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보존직불제를 통해 헥타르당 7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은 작년 기준 수입이

161억불, 수출이 25억불로 163억불의 무역적자가 났다. 원화로 환산하면 13조6천억원이다. 앞으로 무역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우리 농업이 담당할 부분을 수입품에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한국과 아시안 국가간의 농산물 FTA와 한미FTA가 발효되고, 캐나다, EU와도 협상 중에 있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FTA는 필요하다. 세계 교역량의 56%가 FTA국가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현재 4~5%밖에 안 된다. 따라서 FTA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미시적으로 보면 농촌이 어렵고 피폐해지므로 대책없이 개방하면 농민의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래서 선대책 후개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생각하는 가치있는 농산물 생산해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는 산지와 소비지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소비 시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점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이다. 결국 농가단위별로 표준규격화와 브랜드화가 돼야 하고 산지가 집단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형태는 이제 양에서 질로 넘어갔다. 고객이 필요로 하고 가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면 돈을 벌 수 있다. 맛, 영양,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핵가족화로 인해 소포장 가공 생산은 기본이 되었다. 소포장, 외식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고객은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며, 디지털 유통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했고, 산업사회에서는 돈을 가진 자본가가 세상을 지배했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상품이란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때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물건을 공급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은 프로슈머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생각하는 농업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21세기는 공급과잉의 시대다. 예전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 속에서 살았으나 공급과잉 시대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이다.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높은 인건비로 인해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품질과 서비스, 안전한 농산물, 브랜드농산물 등을 만들어야 농업을 지킬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가치있는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의 시대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가치있는 상품'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이다.

수 있다.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성, 친환경성, 기능성 농산물을 만들어야 한다. 칼슘사과, 게르마늄 마늘, 키토산 쌀, 항암성분, 항산화제 등의 표현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정으로 인해 약리적 효능을 기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하다. 이제는 기능성 농산물을 생각해야 할 때다.

또한 신선도가 높아야 한다. 예냉을 해서 신선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진안의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수출만 부르짖지 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

### 농촌관광, 경관 등으로 농가소득 올려야

그러나 농가소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2000~2006년도까지 농산물 전체 생산액은 35~36조원으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도시민과 농민의 소득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농업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외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시대의 농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와 경관, 휴식, 충전을 제공하는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 것이다.

농촌의 문제는 아직 번지수가 명확하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하드웨어 측면에서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발할 것은 농림수산부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농민은 농산물을 생산하며 파생되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관광을 통해 시장 내부화를 시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농촌경관에 대해서 정부가 농산물과 환경지킴이인 농민에게 보상할 방법을 찾는 것이 농업의 살길이다. 농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농산물 생산에 따르는 농촌관광, 농촌경관의 가치를 살리는 농업을 하는 것이다.

농촌은 도시인이 같이 정주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귀농한 사람들은 농민의 뒷새가 심해서 화합하고 어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한다. 이래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외부의 시각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농민과 연결되어 결합생산물을 만들어 낼 때 농촌은 발전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람 한 명이 사는 비용은 진안보다 19배나 비싸다. 정부가

적은 돈으로 국민을 쾌적하게 하자면 농촌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국토가 좁기에 금방 할 수 있다. 농촌에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들어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농간 신뢰 통한 지속적 교류관계 맺어야

현재 기업과 농촌지역간에 1사촌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경제적 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연계를 깊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지역을 알리고 도시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특산물이다. 직접 와서 보고 신뢰하게 만들어 구매욕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구매를 지속하게 하며 인터넷이나 직거래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하나 이상을 특산물로 만들어 도시사람들에게 신뢰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4대거리를 만들고 지속적인 신뢰와 친절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성공하기 위해 돈을 쫓아가면 오히려 돈은 도망간다. 준비를 하고 돈이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 개인은 개인대로 준비를 하고 진안군은 군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자와 외자를 동원하여 진안을 개발해 나가면 진안은 분명 다른 곳과 차별되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영**



### 이상영 고문

1945년 생으로 서울대 농대를 졸업했다. 서강대 경영학 및 경제학 석사 후 동국대에서 산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후 서울지역본부장, 농협중앙회 회장 비서실장, 농협중앙회 상무, 농협유통 사장,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희사이버대학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 소식

- 코리아나화장품(유상욱 회장)** 코리아나미술관은 스페이스C 전체를 갤러리로 활용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춘계예술대전'을 4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춘계 예술대전은 '공모전'이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기성 작가와 신진 작가의 작품 1032점이 한데 어우러져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내 : 02-547-9750 / www.spacec.co.kr)
- ETRO의 한국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듀오(이충희 사장)**는 단순한 브랜드 사의 차원을 넘어 불우이웃돕기와 장학재단 등을 통한 기부 활동으로 고객에 대한 "감사와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ETRO는 패션 문화사업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환원에 전념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 4월, 이태리 대통령으로부터 문화훈장인 '교맹달레 훈장'을 수여 받았다.
- 노년시대 신문사(이심 회장)**에서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에 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해 4월 한 달간 500만원 현상의 표어 공모전을 열었다. 수상자 발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노년시대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지난 4월 3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의 노인대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어린이 유괴·성범죄 추방 국민운동 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어린이 지킴이 활동에 나섰다.
- IBK기업은행(윤용로 은행장)**이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 'IBK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부문별 대상 1억원, 총상금 2억8천만원으로 국내 금융권 공모 사상 상금 규모가 가장 크며, 응모 자격 역시 나이와 성별, 국적 등에 전혀 제한이 없는 '열린 공모전'으로 외국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5월 30일(금)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ibkchallenge.com)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 조천제 한국블렌차드컨설팅그룹(주) 대표이사**는 최근 <굿바이 허둥지둥>을 번역 출판하였다. 캔블렌차드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허둥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살면서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지난 4월 14일 지승룡 민들레영토 사장을 초빙해 "창조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LMI 54차 수

료자 모임을 가졌다. 오는 5월 27일에는 김영식 한국웃음요가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웃음요가를 통한 행복경영"을 주제로 55차 수료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신규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 ● 이창학 청우전자 사장

-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분당테크노파크 B동 307
- 전 화 : 031-707-4387 · 팩 스 : 031-707-0486
- 홈페이지 : www.chungwooelex.com



#### ■ 천석규 천일식품(주) 사장

- 주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67-6 JMM빌딩 6층
- 전 화 : 02-3461-2211 · 팩 스 : 02-3461-2213
- 홈페이지 : www.chunilfood.co.kr



#### ■ 송은숙 (주)한국인식기술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빌딩 1306호
- 전 화 : 02-761-5492 · 팩 스 : 02-761-5495
- 홈페이지 : www.hiname.net



#### ■ 김국중 건국AMC 리조트 부문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건국AMC현장사무실 2층 스타밸리
- 전 화 : 02-453-9926 · 팩 스 : 02-453-9938



#### ■ 민정구 성동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 소 : 서울 중구 흥인동 1-1
- 전 화 : 02-2234-8101 · 팩 스 : 02-2234-1950
- 추천인 :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 대표

### ☞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강관유 엠에스씨코리아 사장의 자녀** 헤실양의 결혼식이 지난 4월 26일(토) 삼성동 웨딩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송언기 태창플랜트 회장의 자녀** 수지양의 결혼식 5월 3일(토) 오후 5시 군인공제회관 3층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농협대학	이상영 경영고문	5월 1일
(주)리더홀딩스	진병문 사장	5월 1일
부원광학(주)	박충봉 회장	5월 1일
(주)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주)미진	정지미 이사	5월 2일
(주)호텔롯데	장경작 대표이사	5월 5일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조수연 대표이사	5월 8일
삼익THK(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주)한국아쿠르트	김순무 부회장	5월 10일
(주)위즈넷	이윤봉 대표이사	5월 11일
삼이그룹(주)	김석희 회장	5월 13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서울사이버대	김수지 총장	5월 14일
ESODO	김진희 대표	5월 15일
현대H&S	홍성원 대표이사 사장	5월 29일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신용보증기금	김규복 이사장	6월 1일
(주)태창가족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6월 1일
CJ시스템즈	김일환 대표이사	6월 1일
世界平和 超宗教 超國家聯合	전선희 평화이사	6월 1일
동남갈포공업(주)	사병식 회장	6월 5일
J-STEP	성명건 회장	6월 6일
(주)대양파이프	곽창선 회장	6월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호 부사장	6월 7일
(주)테크노랜드	사정환 사장	6월 13일
(주)정림건축	김정철 명예회장	6월 17일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대성MD(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농촌희망재단	김영욱 이사장	6월 29일

로 이뤄진 패션쇼와 함께 한숙선 명창의 우리 가락, 민토 직원들의 댄스 무대와 수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회원들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한편 노래방옥션 시간을 통해 노래실력도 뽐내고 옥션에도 참가하는 등 기부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날 옥션은 그동안 북한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오고 있던 지승룡 사장의 뜻에 동참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어서 의미가 더욱 컸다.

• 서울대 연구공원 방문-국제백신연구소&웅진코웨이R&D센터



본원 회원 50명은 지난 4월 21일 서울대 연구공원에 위치한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함께 본원 법인회원사인 웅진그룹(회장 윤석금) 웅진코웨이 R&D센터를 방문해 연구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실을 둘러보는 회원친선행사를 가졌다. IVI 견학시간에는 조안리 홍보고문이 설명을 맡아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며, 웅진R&D센터 방문 때는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이 직접 나서 상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윤석금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고 웅진의 설립에서 현재까지의 경영원칙, 교육과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소신을 밝혀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 숙명여대의 혁신스토리

양병무 원장 <이경숙의 섬김리더십> 출간



숙명여대를 디지털대학의 선두주자, 학생들의 고객만족도 1위 대학, 대학행정혁신의 메카로 만든 이경숙 총장의 리더십을 다룬 책 <숙명여대를 혁신으로 이끈 이경숙의 섬김리더십>(21세기북스)이 출간됐다. 저자는 책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과감한 교육 투자를 통해 숙명여대는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어냈다"면서 "이 총장의 리더십은 오

늘날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정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게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원 소식

• 민토 마담과 함께 한 'CEO party -꽃매기 매고 놀던 상상소풍길'



지난 4월 9일(수) 국회의원 선거 후 70여명의 본원 회원들을 위한 따뜻한 파티가 열렸다. 민들레영토 지승룡 사장과 직원들이 준비한 이 날 파티는 MBC 드라마 '이산'의 주인공 의상으

• <좋은사람 좋은세상> 격월간 발행

2001년 3월 창간해 7주년을 맞은 <BETTER PEOPLE BETTER WORLD>가 5월호부터 <좋은사람 좋은세상>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격월간으로 발행된다. '좋은사람 좋은세상'은 기존 영문제호의 가독성을 보완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함이며, 격월간 발행은 지면증대와 함께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 구독신청 및 문의 : 02-2203-3500(108)

# 리더십은 삶의 현장에서 길러진다

**인**터넷 학습사이트 휴넷이 지난 해 직장인 1,763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927명 중 53.7%가 자신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팀원 836명 중에서는 불과 29.4%만이 현재 팀장의 리더십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원의 61.0%가 팀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리더와 구성원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 전혀 상반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흥미로운 결과였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리더십에 대한 요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확대되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인 것이다. 지금 우리는 통념적인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부모로서, 상사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되는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언제 가장 효과적으로 리더십이 향상되었는지를 묻는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이나 기타세미나를 통해 리더십이 향상된 경우는 0%로 나타났다.

오히려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훌륭한 선생 즉 좋은 멘토나 코치를 만났을 때가 22%로 뒤를 이었으며, 겪기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가 20%, 기타의 다른 경험을 통해서가 16%로 나타났다.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지식과 콘텐츠 중심의 리더십 교육이 성과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리더십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삶과 업무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CEO들이나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리더십의 잠재력을 무한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잠재된 리더십은 개발되어 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부정적인 태도와 습관 때문에 잠재된 리더십의 자질이 피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리더십의 타고난 자질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단기훈련이나 세미나에서 배우는 리더십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리더십이 길러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지식을 삶과 일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처에서 콘텐츠 중심의 리더십교육이 다양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대학은 물론 산업교육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예산이 쓰여 지고 있다.

오직 리더는 다른 사람을 리드하기 이전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리드하고 관리한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 결국 머리가 아닌 실천인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의지와 감성 등 모든 요소들이 작용하겠지만 인간의 모든 성취와 발전에서 목표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

목표를 세우는 일은 성장과 리더십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열쇠이다. 끊임없는 자기훈련도 결국 목표를 설정했을 때 지속가능하다. 목표설정도 훈련과 실천을 통해 길러지는 하나의 습관인 것이다.

LMI 창립자이며 목표설정의 대가인 폴 J.마이어는 자신의 성공에 있어서 약 75%는 목표설정의 결과이며, 나머지 20%는 꿈과 고된 노력과 집중의 결과라고 말한다.

리더십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교육이나 청소년 리더십교육이 콘텐츠 중심의 지식전달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리더십 배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

**엄경애** 한국엘엠아이(주) 사장

▶ LMI를 만나십시오!  
40년 이상 세계 70여 개국에서 검증된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십시오!  
끊임없는 도전과 승리, 최고를 향한 열정과 에너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원하시면...



한국엘엠아이(주) www.lmikorea.com 02-2202-8700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5층

# 창조경영시찰단\_일본



## 대기업 대표 **도요타자동차** vs 중소기업 대표 **미라이공업**



### Program

#### 5/29(목) 제1일차

- 07:00 인천공항 집결
- 09:15 탑승 (아시아나 인천-나고야OZ-122)
- 12:00 오찬 후 호텔 도착 (참가자 인사 및 교류)

14:00 **특강 I** : 일본 대기업 벤치마킹  
 <도요타방식을 비롯한 일본우수기업 경영혁신사례>  
 오토카 히데아끼 前 TOYOTA NORTH AMERICA 사장

- 16:30 질의응답 및 집중탐구
- 18:00 만찬

#### 5/30(금) 제2일차

- 07:30 호텔조식 후 이동
- 09:00 **현장탐방** : <도요타자동차 모토마치 공장 견학>  
**현장탐방** : <도요타회관 방문>  
**간담회** : 도요타자동차 관계자

- 12:10 중식 후 이동 (약 2시간 이동)

14:30 **특강 II** : 일본 우수 중소기업 벤치마킹 미라이공업㈜  
 <창조경영, 편경영, 비용절감경영으로 이룬 유토피아경영>  
 아마다 아키오 미라이공업㈜ 창업주

**현장탐방** : <미라이공업 방식의 경영현장 탐방>  
 석식 후 워크샵

**워크샵** 강연과 현장방문 소감과 벤치마킹 포인트 토론

#### 5/31(토) 제3일차

- 08:00 호텔 조식 후  
**현장탐방** : 도요타산업기술기념관 방문  
 문화시찰 (사내투어, 아쓰다신궁, 나고야성 )

- 17:45 이동

- 19:45 나고야국제공항 출발 (아시아나 1700)  
 인천국제공항 도착  
 개별해산

\* 아래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조경영, 상상경영, 감성경영의 시대에 발맞춰 본원에서는 세계적인 일본의 대기업 도요타자동차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미라이공업을 시찰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많은 도요타 관련 서적들과 도요타 벤치마킹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도요타방식을 정말로 이해하고 하고 있을까요? 끊임없는 개선과 제안 활동을 통한 "도요타웨이(TOYOTA WAY)의 지속적 무한성장 비결"인 도요타 생산방식(TPS)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성원 각자가 꾸준히, 재미있게 개선을 실행해 나가는 문화를 조직 전체에 뿌리내리게 한다는 도요타방식의 내면을 연구해보고 조직 전체화 하기까지의 엄청난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 현장 체험 및 집중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율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진 인간 중심 유토피아 경영의 신화로 일본 최고의 중소기업, 샐러리맨들의 천국을 만든 '미라이공업'의 아마다 아키오 사장과 경영현장을 방문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항상 생각하라"라는 회사의 모토로 어떤 아이디어든 제안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이디어 장려금 제도, 5년마다 전직원 해외여행, 정년 70세, 연간 140일의 휴가, 3년간의 육아휴직 등 일본 제일의 겸약경영자인 아마다 아키오 사장은 직원들에게 돈 뿐만 아니라 일할 맛까지 줍니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는 미라이공업의 높은 경영성과의 비밀을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회원사 및 관계사 대표, 혁신제안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연수일정** : 2008년 5월 29일 (목) ~ 5월 31일(토) 2박 3일

**연수지역** : 나고야, 도요타시, 기후현

**참가대상** : 기업체 CEO 및 임원, 경영혁신 담당 및 제안리더, 전문직업인 외

#### 연수내용

- ▶ 변혁과 혁신의 리더로서 현장을 이끌어온 주역의 생생한 특별세미나  
 오토카 히데아끼 **전 도요타 북미 아메리카 시장 특별강연**  
 아마다 아키오 **미라이공업 창업주 특별강연**
- ▶ 탐방기업 현장체험 및 관계자(임원급) 간담회
- ▶ 참가사별 활용 가능한 방안 설계 및 참가자 집중 토론의 장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체험

#### 참가안내

**참가비용** 회원사 1,600,000원/1인, 비회원사 1,800,000원/1인

\* 연수비용에는 왕복 항공료, 숙박비, 기업방문 교류비, 특별 세미나 강연료, 문화시찰비, 여행자 보험료 및 현지교통비 등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활동 경비 제외)

**입금계좌** 우리 132-055539-13-502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신청방법** FAX, 2203-1974 / E-mail: ssj@khdi.or.kr (참가신청서 작성 후 발송)

**신청마감** 2008년 5월 16일 (금)까지 (선착순 20명 마감)

**신청문의**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과장 Tel: 2203-3500(103) Fax: 2203-1974

# 제26회 인간개발연구원 JEJU CEO SUMMER FORUM

## 대표주제

### 감성경영과 新마케팅으로 만드는 미래의 세계



일 정 : 2008년 7월 20일(일)-7월 23일(수) 3박4일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참가대상 : 기업체, 공공기관 CEO 및 임원 300명

주 관 :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참가비 : 회원 170만원, 비회원 190만원

(1인 참가시 할인/2인 기준 전일정 조식 및 만찬 포함)

문 의 : TEL. 02-2203-3500(103)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정성숙 과장



▶ [사진] 2007 제주 CEO 포럼 중에서

미래의 세계는 기술개발만으로는 부족한 경영의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기술로도 고객의 감성을 어떻게 마케팅 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국가의 경영도 지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감성경영은 소비자들의 인식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해 업종,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벽을 허무는 통섭(統攝, Consilience)으로 지식의 통합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리더와 구성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안하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계포럼에서는 창의적이지만 휴머니즘에 더 가까운 감성경영과 매력적인 新마케팅 성공전략을 들어보고 하반기의 경영전략에 도움이 되는 창조적 경영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이슈가들로 채워질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Jeju Summer Forum Program

## Sensitivity CEO, Creative CEO

상기 프로그램은 섭외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된 일정을 공지드립니다.



### 7/20(일) 제1일차

- 13:00 등록접수  
제주롯데호텔
- 16:00 **개회인사의 말씀**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 16:10 **오리엔테이션**  
인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
- 16:30 **제주섬머포럼 기초강연**  
문화와 감성이 살아있는 문화대국의 꿈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 16:40 **제주섬머포럼 가족특강**  
아름다운 삶을 위한 시와 음악  
이해인 수녀, 김정식 작곡가
- 19:00 만찬 및 리셉션
- 20:00 참가자 가족들의 친교 한마당

### 7/21(월) 제2일차

- 08:30 **글로벌 통합기업의 모델과 마케팅 전략**  
이희성 한국IBM 사장
- 09:40 **성공하는 마케팅의 원칙, 시장을 창조하라**  
조서환 KTF 부사장
- 10:50 **고객을 매혹시키는 스토리텔링 마케팅**  
문애란 퍼블리시스웰컴 사장
- 12:00 A팀: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배 골프대회 제주 스카이하일 CC  
B팀: 제주 자유관광



### 7/22(화) 제3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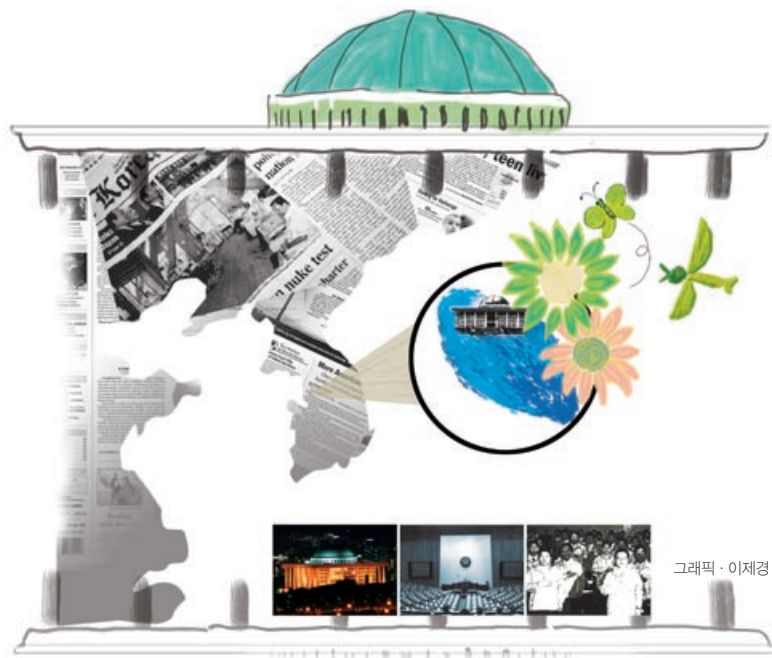
- 08:30 **공감경영으로 만드는 Posco Way**  
정준양 포스코 사장
- 09:40 **블루 스페이스전략 (Blue Space Strategy)**  
이승환 삼성테스코 사장
- 10:50 **최고의 서비스가 최고의 고객을 만든다**  
손주는 메가스터디 사장
- 11:50 KHDI 제주섬머포럼 기념촬영
- 12:10 점심 및 자유시간
- 14:00 **< 문화강좌 > 명작에서 배우는 사랑과 인생의 의미**  
한철히 서양화가, 미술전문MC
- 15:00 **< 건강강좌 > 비타민 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
- 16:00 **< 종합강연 > 화합을 통한 도약, 소통과 섬김의 리더십**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17:00 **폐회인사**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
- 18:00 **KHDI 제주섬머포럼의 밤**  
[제1부] 만찬 및 이야기가 있는 이벤트 "추억을 찾아서"
- 20:00 [제2부] 열린음악회

### 7/23(수) 제4일차

- 친선골프그룹**
- 06:00 이동: 호텔-골프장
- 07:00 인간개발연구원 회장배 골프대회
- 11:30 이동: 골프장-호텔
- 12:00 호텔 체크아웃
- 기타 일반가족**
- 06:00 자유시간
- 12:00 호텔 체크아웃

# '정치 1번지' 여의도의 세 가지 아우라

정지환 여의도통신 대표기자



여의도(汝矣島).

한강 하류에 발달한 범람원(汎濫原)이자 섬이다.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새끼 섬(밤섬)과 새끼 강(셋강)을 끼고 있는 여의도는 '한국 정치의 1번지'이다. 국회의사당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붙은 별칭일 터이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신문사 이름을 '여의도통신'이라고 작명(作名)한 1차적 이유도 여기에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1번지로서의 여의도의 아우라(aura)가 그렇게 건전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여의도통신 출범을 앞두고 자문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인 박노해 시인은 여의도에 대한 '부정적 아우라'를 거론하며 여의도통신이란 명칭에 우려를 표명해 주기도 했다. 사실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은 박 시인만이 아니었다.

그런 충고들을 들으며 필자는 나중에 일본 총리를 지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가 구마모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1971년 33세의 나이로 참의원에 당선된 그는 재선에 성공하며 자민당 부간사장과 대장정무차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이른바 '잘 나가던' 중앙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지방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다. 1983년 참의원을 '때려치우고' 고향인 구마모토현 지사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정치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아 중앙 정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호소카와가 45세의 나이에 스스로 중앙 대신 지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자신의 저서 <지방의 논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

힌 바 있다.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가타쵸(永田町)의 논리'에 지쳐 버렸다."

그러면서 호소카와는 "나의 꿈이 부풀면 부풀수록 중앙 정계의 정체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 '나가타쵸(永田町)'에서 '여의도'를 읽는다

그렇다면 호소카와에게 염증을 불러일으켰던 '나가타쵸의 논리'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의 '여의도 정치'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여의도와 그 주변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주요 정당의 당사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처럼, 도쿄의 황거(皇居) 건너편 언덕에 위치한 나가타쵸에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수상관저, 자민당·사회당 본부가 밀집해 있다.

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의 주선으로 일전에 일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여의도통신을 설명하기 위해 '여의도'라는 지명을 거론하자 옆자리에 앉아 있던 백지훈 의원(재일동포 출신 참의원)이 "아, 한국의 나가타쵸"라고 언급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렇다. 나가타쵸는 '일본 정치의 1번지'를 상징한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에는 "나가타쵸의 상식은 국민의 비상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일반 국민의 정서와 철저히 괴리된 일본의 중앙 정치를 가리키는 말일 터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여



### 정지환 기자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및 동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파리정치대학원 세미나과정을 수료했다. <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여의도통신> 등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에 솔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다수의 논쟁적 기사를 남겼다. 2000년 한국잡지협회가 주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했으며, 2004년 <복음과상황>이 기획한 '주목되는 젊은 그리스도인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101인이 들려주는 성공비결 101가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여의도의 긍정적 아우라는 '척도'와 '벼리'다. 국회 혹은 입법은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회와 역사의 상식에 부합하는 '척도'와 '벼리'로서 여의도의 위상이 바로 서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의도 상식은 과연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비상식' 중 어느 쪽과 더 가까운가?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좋은 대답을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술자리에서 여의도를 질질질 경 씹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한국 정치를 향해 실컷 욕설을 퍼붓는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불평과 비판은 쉬운 일이다. '억지로라도' 절망의 벼랑 끝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우리는 여의도의 아우라에서 몇 가지 긍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우선 꼽아 볼 수 있는 것이 '척도'이다. 척도는 잣대, 기준, 표준 등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여의도 면적의 4배(혹은 12배)'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는 수많은 매체와 기사에서 발견하곤 한다. 다시 말해 여의도는 무언가의 규모나 범위를 알기 쉽게 설명할 때 일정한 기준과 표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의도의 두 번째 긍정적 아우라는 '벼리'에서 찾을 수 있다. 벼리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다.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 일이나 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줄거리가 바로 그것이다. 비유컨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벼리, 즉 그물코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는 299명의 의원만 있는 게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대의제(代議制)라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회라는 벼리와 연결돼 있는 것이다.

### 여의도통신이 '목격자'와 '기록자' 될 터

사실 국회 혹은 입법(立法)의 영역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최근 언론에 소개된 뉴스 하나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식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쉽게 설명하면, 특정 식품을 먹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동일한 식품을 먹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극단적으로 안전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집단소송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생소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집단소송제가 실시되고 있는 분야는 증권이 유일한데, 소액주주의 소송에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그나마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대기업은 '묻지마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식품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식품업계가 순순히 이 제도의 도입을 수용할 것인지, 정부는 끝까지 이 제도의 도입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회가 과연 정부와 기업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 언론은 또 어떤 입장과 행동을 취할 것인지, 현재 상황에선 아무도 그 결론을 알 수 없다. 다만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전적으로 국회의 몫이라는 점은 잊지 말자.

국회 혹은 입법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 사회와 역사의 상식에 부합되는 '척도'와 '벼리'로서 여의도(국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153석), 민주당(81석), 자유선진당(18석), 친박연대(14석),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3석), 무소속(25석) 등 다양한 정치그룹이 새롭게 포진한 18대 국회가 여의도의 긍정적 아우라를 두텁게 쌓아가길 바란다. 여의도통신이 '목격자'와 '기록자'가 될 것이다. **KHDI**

# 에펠탑과 경쟁력

문용린 서울대 교수 / 전 교육부 장관



21 세기의 화두는 단연코 '경쟁력'이다. 국가건 기업이건 가정이건 개인이건 경쟁력을 갖추어야한다는 주제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다. 경쟁력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품질 경쟁력(Quality competitiveness)이고,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 경쟁력(Network competitiveness)이다.

사과의 맛이 좋은 것은 품질 경쟁력에 속하지만, 그 사과가 보다 많은 가게의 진열대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은 네트워크 경쟁력이다. 한 사람이 영어회화가 능통한 것은 품질 경쟁력이 높은 것이고, 그 사람이 주변의 누구에게서나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네트워크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한 회사가 희귀한 특허상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품질 경쟁력의 논의에 해당되지만, 그 상품을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하고 소장하고 싶어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네트워크 경쟁력에 관한 논의에 해당된다. 한 국가가 우수한 지식과 기술 및 인적·물적자원을 구비한 것을 품질 경쟁력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원들이 서로 합쳐져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네트워크 경쟁력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처한 경쟁력의 위기는 품질 경쟁력에서보다는 네트워크 경쟁력에서 발생한다. 똑똑한 사람이나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적어서 오는 위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때 긍정적 시너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발생하는 데에서 오는 위기다. 사람들 하나 하나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면서 경쟁도 하고 협동도 하는가 하는 네트워크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에펠탑은 하나의 교훈을 준다. 에펠탑이 100년을 넘도록 저렇게 위용을 떨치고 서있는 것은 좋은 품질의 강철 빔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거운 철근을 연결시켜 힘의 균형을 유지토록 해주는 15cm짜리의 수많은 작은 못들 때문이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 박람회 계획의 일환으로 건축가인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건축된 기념물이다. 이 탑은 프랑스와 파리의 상징물로 매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에펠탑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

에펠탑의 높이는 약 320m로 건축 착수 당시에 도시 미관, 미학, 그리고 건축공법의 측면에서 여러모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적인 반대도 받았다. 당시 프랑스의 대표적 소설가인 모파상조차도 그런 반대에 앞장섰다. 그러나 건축 후 우리는 금방 해소되었다. 완공 후 모파상은 이 탑의 카페에서 식사를 즐겼는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은 이 카페뿐이기 때문이지요."

이 탑은 아름다운 곡선의 미가 배어있는 건축물이며, 1930년 크라이슬러빌딩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에펠탑은 큰 건축물치고는 비교적 단순한 종류의 부품으로 조립되었다. 약 6,400톤에 이르는 18,038개의 크고 작은 강철 빔과 철판이 주된 부품이며, 그 부품들을 서로 접합 내지 연결시켜주는 2,500,000만개의 15cm 길이의 리벳이라는 강철못이 사용되었다.

이 탑의 주재료인 철근 빔은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워낙 강도가 높아서 용접으로는 연결이 불가능해서 리벳을 뜨겁게 달군 후 빔과 빔 사이에 끼워 넣고 망치로 두들겨 연결시켰다고 한다. 2,500,000만개의 못 중 단지 하나라도 잘못되면 6,400톤의 엄청난 무게를 버티는 철근 빔들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각각의 못 구멍의 위치는 5,000개의 서로 다른 설계 도면에 표시되었고, 이 도면에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못들이 박혀졌다고 한다.

에펠탑이 허물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강철 빔의 강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못들이 빔들을 잘 연결(networking)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철 빔의 품질이 아니라, 강철을 연결시켜주는 못들의 네트워크 기능 때문에 100년이 넘도록 견재하는 것이다.

우리를 대다수는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그 위용과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그리고 100년이 넘게 일체의 미동도 없이 세워질 당시와 동일하게 의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에 감탄한다. 보통 사람들은 강철 빔이 버티는 힘인 줄 알지만 그것은 오해다. 그것은 오히려 그 자체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힘을 분산시키고 균형 잡게 하여 버티는 힘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바로 그 작은 2,500,000만개의 못 즉, 강철 리벳 때문이다. 이 리벳 못이 바로 네트워크 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에펠탑의 리벳에서 경쟁력의 본질을 새삼 깨우친다. **▶▶▶▶**



장성군  
**CHANGSUNG**

**친환경 신도시!**

**부자농촌을 꿈꾸는 장성!**



**365 생**

은? 365일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담은 친환경 농산물 대표 브랜드입니다.

**장성8경**

1

**고불총림 백양사**

노령산맥 백암산 자락에는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인 천년가람 백양사와 운문암, 청류암, 천진암 등 10여개의 암자가 자리 잡고 있다.

2

**전국 최대 조림성공지 축령산휴양림**

전북 고창과 경계를 이룬 축령산 일대에는 50년생 편백과 삼나무 등 260ha의 상록수림대가 조성되어 있다. 독립가였던 춘원 임중국선생이 황폐화된 임야에 1956년부터 30년간 조림한 휴양림은 전국 최대 조림성공지로 손꼽힌다.

3

**전남 들녘의 젖줄 장성호**

장성, 함평 등 4개 시군의 농촌들녘을 적셔주는 장성호는 백양사 입구에 위치하여 불교인의 방생지로 유명하다. 특히, 주변에 장성호관광지, 남창계곡이 인접해 있고 시원하게 펼쳐지는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어 전국적인 수상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4

**울창한 수림이 이어지는 남창계곡**

사계절 맑은 물이 넘쳐나는 남창계곡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의 조화는 봄철 신록, 여름철 시원한 계곡, 가을철 단풍, 겨울 설경과 더불어 산록의 너털경이 매우 아름답다.

5

**민족의 영웅 홍길동생가**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민중의 영웅 홍길동이 조선왕조실록 등 충분한 고증을 거쳐 황룡면 아차곡에서 실존인물로 다시 태어났다. 장성군은 생가 터를 중심으로 발굴 작업을 벌여 주춧돌 및 백자와 분청사기를 발굴하고 생가 터는 원형대로 보존하였다.

6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선생과 필암서원**

도학, 절의, 문장에 모두 탁월하여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선생을 모신 서원으로 고종 때 서원철폐령에도 호남에서 단 한곳만 남은 유서 깊은 서원이다.

7

**관광유적 입암산성**

입암산 정상에 포곡식으로 조성된 입암산성은 삼한시대부터 축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때는 몽고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8

**농촌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금곡영화촌**

마을 뒷산이 옥녀단장형으로 좌측으로 장군봉, 우측으로 투구봉이 둘러싸고 있고, 입구에는 다랑이 논 사이에 고인돌 20여개가 등성등성 박혀 있다.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와 모정에서 바라본 마을전경은 50~60년대의 농촌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1

2

3

4

7

5

8

6

# 질병의 조기발견,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는 사실만큼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며, 또 관리하고 치료, 통보하는 모든 과정에서, GE헬스케어는 발병 이전에 가능한 한 많은 방법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더 이른 질병 진단이 좀더 빠른 질병의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Healthcare Re-imagined.**

[www.ge.com](http://www.ge.com) / [www.ge.co.kr](http://www.ge.co.kr)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1-3 GE Tower / [www.gehealthcare.co.kr](http://www.gehealthcare.co.kr)



GE imagination at work

